

116억 들인 장흥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없다

12개블럭 14만9891㎡ 중 1개 업체에 고작 2000㎡ 만 팔려 군, 9개월 지났지만 분양 전략 없어 '빈 농공단지' 우려

‘농수산물 가공특화단지’ 차원으로 조성된 장흥농공단지가 분양 9개월이 지났지만 고작 1개 업체만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기 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전략 부재, 영세한 지역업체들의 투자 여력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16억원을 들여 올 초 장흥군 부산면 급자리 14만9891㎡

공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이들 기관은 가상 투자, 입지적 여건까지 고려해 읍·시료품 제조업체들이 이 농공단지에서 유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를 무분별하게 조성한데다, 도내 농공단지 대부분이 농수산물 가공·특화한 읍·시료품 업체를 유치 대상으로 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장흥 제2농공단지 입주를 주저하고 있다.

그나마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영세한 지역 업체들로, 장흥군이 관여 R&D기관 인프라 구축과 산업 인력 수급이 쉬울 것이라고 보고 농



마늘심기 분주
지난 30일 강진군 작천면 들판에서 벼 수확을 끝낸 농부들이 축축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마늘을 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읍천면 주민 장흥댐 물 마신다

광역상수도 주민지원 공모 12억8700만원 투입

강진군 읍천면 주민들이 장흥댐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읍천면 주민들은 지하수나 계곡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강진군은 지난 29일 “읍천면에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이 2014년 주민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4년까지 12억8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11억5800만원의 사업비에 군비 1억2900만원까지 더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특히 읍천면 기좌리에 40t 규모

의 배수지가 이미 설치돼 있고, 배수지에서 각 주택까지의 관로 길이가 짧아 사업비 대비 투자 효과도 높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읍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나주역 ~빛가람혁신도시 진입도로 5.39km 임시개통

나주시 송월동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바로 연결하는 나주역~빛가람혁신도시 간 진입도로 5.39km 전 구간이 1일부터 임시 개통된다.

나주시 송월동 송월택지지구에서 영산강을 횡단해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의 임시 개통으로 나주시청에서 빛가람혁신도시까지의 거리가 기존 20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착공한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공사비 1480억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나주=송영희기자 yson@

영산강 횡단하는 빛가람대교.

‘장성꽃감’ 명품 브랜드 육성 농업기술센터 세미나

장성군이 전국 최고 품질의 명품꽃감 육성에 나섰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0일 농업인화관에서 꽃감생산농가, 전남농업기술원, 꽃감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꽃감 품질 고급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장성꽃감의 품질고급화와 브랜드관리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성꽃감 연구팀의 연구조사결과 보고를 비롯해 초청강사들의 강의와 꽃감대표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지난 2월부터 꽃감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생산·가공 전문지도사를 주축으로 5명의 자체연구팀을 구성, ▲꽃감생산농가 설문조사 ▲타 시군 벤치마킹 ▲

해외꽃감산업 자료수집 ▲꽃감 성숙 시험 등의 결과를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군은 그 동안의 자료수집 내용과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꽃감생산 위생·품질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농가에 배부하고 꽃감생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장성을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명품꽃감 고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화순 군민상 문체부문 김종수씨 선정

화순군은 지난 30일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2회 화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육문화체육부문에 김종수(53)씨를 제32회 화순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부문, 교육문화체육 부문, 효행상 부문, 새

일꾼상 부문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역사회발전부문 2명, 교육문화체육부문 3명, 효행상부문 1명, 새 일꾼상부문 1명 등 모두 7명이 접수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전북 단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본격 추진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5억3000만원 포함 정읍시 덕천면 일대 33만5826㎡ 부지에 조성

정읍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15억3000만원이 포함됐다.

이 기념공원은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황토현전적지) 일원 33만 5826㎡(약 10만평) 부지에 자리하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88억원이 투입된다. 공원 내에는 추모공

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에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공원이 국가예산으로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국회에서 기념공원 조성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공원 조성부지 일원인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 4월7일(음력)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치른 최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전승지다. 1963년 10월3일 공식적으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기념시설물로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됐고, 1981년 국가문화재 사적 제295호로 지정된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

단신

전주시 25일까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

전주시는 1일부터 25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에 나서기로 하였다. 전주시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의 열매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중금속 기준치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시내 은행나무는 24개 노선에 1만2000그루가 식재돼 있으며 채취된 은행은 전주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나눠줄 방침이다. 올해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없어 지난해 보다 40% 채취량이 증가해 약 2800kg 가량이 채취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고창 경관농업·복분자 산업특구 우수 선정

중기청, 전국 151개 특구 평가

고창군은 지난 30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관농업특구와 복분자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9개 지자체 151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구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관농업특구는 관광레포츠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고창청보리밭축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상태 그대로 100ha 규모로 펼

특히 복분자 관련 산업을 집적화, 식품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특구지역 내에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1ha에 총사업비 715억원을 투입, 복분자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현재 1500억원의 복분자 시장이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날 경남 산청군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우수지역특구 시상식에서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았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부안군, 중 관광객 유치 나섰다

관광공사와 함께 설명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부안군,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나섰다. 부안군은 지난 30일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중국의 남경, 상해, 곤명, 광저우 등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4700만명의 대도시인 중국 운남성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30여 개 여행사와 지역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까지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전라북도·부안군·한국관광공사는 중국운남성국제여행사·한국 SKY항공여행사와 한·중 상호 문화 교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여행객 유치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yv0681@

군산 역사박물관 ‘시간의 흔적-군산미술재조명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10월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간의 흔적-군산미술 재조명전’을 연다. 전시는 군산근대미술관(옛 18은행 군산지점)과 전북도립미술관의 협력협정에 따라 ‘제1회 도립미술관 특별전’으로 열리며 남극 최서한의 목포도도(圖) 등 작품 15점이 선보인다. 박물관은 “근대기 군산에서 활동한 최석환, 심상윤, 황성하, 황용하, 서병갑, 문복철, 김현철 등 작고 화가 7명의 희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주·군산=박금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군민의 상 진영호 학원농장대표 선정

고창군은 지난 30일 “100ha의 청보리밭을 일궈 경관농업의 새로운 장을 연 진영호(65) 학원농장 대표를 ‘고창 군민의 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대규모 청보리밭을 만들고 ‘청보리밭축제’를 열어 해마다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모았다. 이를 통해 식량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화하는 데 성공, 우리나라 최초로 경관농업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이밖에 안구백 민주당의 원과 김정현 매일유업 회장에게도 지역 발전에 힘쓴 공을 인정해 군민의 상을 주기로 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군 장류박물관서 ‘순창을 담은 명품 문화재 특별전’

순창군은 지난 30일 “10월10일부터 연말까지 장류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순창을 담은 명품 문화재’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훈민정을 창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 언해서인 보물 제745-10호 ‘월인석보 제15’가 첫선을 보인다. 또 고려시대 이후 순창 성향제와 성향 신앙의 발자취가 목관에 기록된 중요민속문화재인 ‘성향 대신사적 현판’도 함께 전시된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 실학자이면서 지리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던 여암 신경준 선생의 ‘여암행장 필사본’과 그 후손들의 고문서 등 19점의 박물관 소장유물도 선보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